



해외보험리포트

브라질

강윤지, 김유미

Executive Summary

브라질은 남미 최대 영토와 인구를 가진 연방국가로 북부 아마존권부터 남부 제조업 벨트까지 기후, 산업, 생활양식, 재해위험이 크게 달라 전국이 하나의 균질한 시장이라기보다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연방형 시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으로는 농업·광업·석유가 대외부문을 지탱하고 서비스업 및 제조업이 대형 내수시장을 떠받치는 구조를 바탕으로, 원자재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대형 소비시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임.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 분쟁에 따른 불안이 수출과 농업 생산비의 하방 위험으로 거론되지만, 브라질은 순원유 수출국이면서 외환보유액도 견조해 환율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함

2025년 시행된 보험계약법은 관행, 민법, 감독규정에 흩어져 있던 계약규칙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여 계약 해석과 보험금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큼. 다만 2026년 현재에도 후속 하위규정 정비가 진행 중이어서, 최근 브라질 보험법제의 핵심은 '개편 완료'보다 '새 체계로의 이행'에 있다고 볼 수 있음

2024년 브라질 보험시장은 전 세계 보험시장의 1.1% 규모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보험침투도는 4.1%, 보험밀도는 420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943달러)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됨. 2024년 보험료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업이 53.9%, 손해보험업이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보험료에서 손해보험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생명보험은 고령 가구와 도시 지역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의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과 할부 및 소액대출 중심 소비문화에 기반한 신용생명보험의 확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원천징수세 부과 등 규제 강화와 가입자들의 잦은 중도 인출 성향으로 인해 적립금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손해보험은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확대와 기업 신용 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보증 및 신용보험의 고성장, 기후변화에 따른 재물보험 수요 확대 등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견조한 원수보험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I

국가 개요 및 경제

1. 국가 개요

- 브라질은 남미 최대 영토와 인구를 가진 연방공화국으로, 북부의 아마존부터 남부의 온대 지역까지 기후·산업·생활양식이 크게 다른 복합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의 균질한 시장이라기보다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연방형 시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¹⁾
 - 정식 명칭은 브라질 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Brazil)이며, 인구는 2025년 기준 약 2억 1,342만 명, 국토 면적은 850만 9,361km²로 한국 면적의 약 85배에 달함
 - 1988년 헌법은 브라질을 주(States)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그리고 연방구(Federal District)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제도와 함께 지역 단위의 행정·정책 환경도 시장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함
 - 예를 들어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가 있는 남동부는 금융·서비스·제조업과 자동차보험·기업보험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북부 아마존권은 낮은 인구밀도와 수로·장거리 물류, 홍수·산림·기후위험이 시장 접근성과 손해조사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
 - 브라질의 화폐 단위는 헤알(BRL)이며, 보고서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 1헤알은 약 0.20달러(USD), 약 298원(KRW)임
-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포르투갈어권 국가이자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민과 혼합을 거쳐 형성된 사회로서, 언어와 문화, 종교, 생활양식의 결합 양상이 주변 스페인어권 국가들과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
 -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며, 이는 스페인어권이 대다수인 중남미에서 브라질을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국가적 특징 가운데 하나임
 - 2025년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이 발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비중은 2010년 65.1%에서 2022년 56.7%로 낮아진 반면, 개신교는 21.6%에서 26.9%로, 무종교 인구는 7.9%에서 9.3%로 늘어나 브라질의 종교 구성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음²⁾

1) KOTRA(2026), “국가지역정보-브라질”

2) IBGE(2025. 6. 6.), “2022 Census: Catholics remain in decline; protestants and persons with no religion increase in the country”

- 이민자 출신 구성도 달라져 외국 출생자·귀화자는 2010년 약 59.2만 명에서 2022년 약 100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라틴아메리카 출신 비중의 확대로 베네수엘라·볼리비아·아이티 등 역내 이주 흐름이 브라질 사회의 새로운 특징으로 부상하고 있음³⁾
- 이러한 사회적 혼합성은 브라질이 외부 문화와 자본을 비교적 빠르게 수용하는 한편, 지역별로 소비 취향과 생활양식, 정치 성향, 소득 수준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배경이 됨
 - 따라서 브라질 시장은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대도시권, 북동부 저개발지역, 아마존권, 남부 제조업 벨트 등 성격이 다른 여러 생활권과 산업권이 공존하는 사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표 1〉 브라질 주요 국가 지표

항목	브라질 지표	한국 지표	항목	브라질 지표	한국 지표
면적	850만 9,361km ²	10만 472km ²	인구	약 2억 1,342만 명	약 5,167만 명
생산가능인구	약 1억 4,787만 명	약 3,591만 명	고령화 비중	약 11%	약 20.3%
소비자물가상승률	4.26%	2.1%	경제성장률	2.3%	1.0%
GDP	약 2조 4,440억 달러	약 1조 8,727억 달러	1인당 GDP	약 1.15만 달러	약 3.62만 달러
기대수명(남)	73.3세	80.8세	기대수명(여)	79.9세	86.6세

주: 각 지표는 2025년 기준임(기대수명 지표는 2024년 기준)

자료: 브라질 지표의 경우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과 브라질 중앙은행, 한국 지표의 경우 통계청 KOSIS의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함; IBGE(2026. 3. 30.), "IBGE updates geographic data on Brazilian states and municipalities for 2025"; IBGE(2025. 8. 28.), "Country's estimated population reaches 213.4 million residents in 2025"; IBGE(2026. 1. 9.), "IPCA of December is 0.33% and cumulative result is 4.26% in 2025"; IBGE(2026. 3. 3.), "GDP grows 2.3% in 2025"; IBGE(2025. 11. 28.), "Life expectancy reaches 76.6 years in 2024"; KOSIS 100대 지표, 국토 면적; 국가데이터처(2023. 12. 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KOSIS(2023. 12. 14.),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전국; 국가데이터처(2025. 9. 29.), 2025 고령자 통계; 국가데이터처(2025. 12. 31.),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한국은행(2026. 3. 10.),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국가데이터처(2025. 12. 3.),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

- 브라질은 외국자본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자본과 동등대우를 부여함. 또한, 대규모 내수시장과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이 장기적으로 유입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대(對)브라질 직접투자 잔액은 1조 1,410억 달러로 이는 브라질 GDP의 46.6%에 해당함⁴⁾
 - 브라질의 외국자본 관련 기본 법체계는 1962년 외국자본법을 중심으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원칙적 동등대우를 규정하고 있고, 1995년 이후에는 브라질 내 설립 회사가 지배주주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회사로 취급되고 있음
 - 다만 핵에너지, 우편·전신, 일부 항공우주 활동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농지 취득·임차, 금융, 언론, 광업, 보건 분야에는 사전허가가 요구되거나 지분·운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³⁾ IBGE(2025. 6. 27.), "2022 Census: number of immigrants resumes growth for the first time since 1960"

⁴⁾ 브라질 중앙은행(2025), "Direct Investment Report"

2. 경제

- 브라질 경제는 농업·광업·석유가 대외부문을 지탱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2억 명이 넘는 내수시장을 떠받치는 구조를 바탕으로, 원자재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대형 소비시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임
 - 2025년 브라질의 실질 GDP 성장률은 2.3%, 명목 GDP는 12.7조 헤알이었고 부문별로는 농축산업(11.7%), 서비스업(1.8%), 산업(1.4%)이 모두 성장하며 대외 및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세를 지탱하였음
 - 특히 브라질은 농축산 수출 경쟁력이 매우 높고 광물·석유 생산 기반도 보유한 데다, 사탕수수 기반 바이오연료와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원·농업·에너지·내수시장이 함께 맞물린 복합경제의 성격이 두드러짐
 - 최근 대외환경 측면에서는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 분쟁에 따른 비료 가격·공급 불안이 수출과 농업 생산비의 하방 위험으로 거론되지만, 브라질은 순원유 수출국이면서 외환보유액도 견조해 환율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함

- 브라질 현대 경제의 출발점은 1930년대 이후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하고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해 1차 상품 수출경제에서 공업화 경제로 전환한 데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1956~1961년 쿠비체크 정부의 플라누 지 메타스(Plano de Metas)에서 구체화되었음
 - 당시 브라질은 1차상품 수출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하였고, 국가는 공기업과 개발금융을 활용해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직접 확충하는 역할을 함
 - 플라누 지 메타스는 쿠비체크 정부가 내세운 ‘5년 안에 50년의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에너지·수송·기초산업 투자와 브라질리아 건설을 결합해 산업화와 국토 운영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한 계획이었음
 - 브라질리아는 1960년 리우데자네이루를 대체해 내륙에 건설된 새 수도로, 기존의 해안 중심 발전을 내륙으로 확장하고 중서부 개발과 국토 통합을 위한 수도이전 사업이 진행됨

〈표 2〉 브라질 주요 경제 정책 변천

시기	경제 상황 및 정책	주요 내용
1930년대~ 1950년대 전반	국가주도 산업화와 수입대체	• 국가가 산업화의 중심 주체로 등장하였고, 수입대체 산업화와 공기업·개발금융을 활용한 주요 생산기반 확충이 본격화됨
1956년~1961년	플라누 지 메타스 (Plano de Metas)	• 쿠비체크 정부가 에너지·수송·기초산업 투자와 브라질리아 건설을 결합해 산업화와 국토통합을 함께 추진함
1972년~1974년	제1차 국가개발계획(I PND)	• 고도성장기의 교통·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투자를 통해 산업화의 성장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춤

〈표 2〉 계속

시기	경제 상황 및 정책	주요 내용
1980년대~ 1993년	외채위기와 고인플레이션	• 외채 부담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겹치며 국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가 드러났고, 거시안정화와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커짐
1994년~2000년	플라누 헤알(Plano Real) ·시장개방·거시안정화	• 플라누 헤알을 통해 초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민영화·무역자유화·물가목표제·재정책임법 도입으로 경제운영 체계를 안정 중심으로 재편함
2007년~2014년	성장가속화프로그램(PAC)과 내수·인프라 확대	• 에너지, 물류, 주거, 도시 인프라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인프라 투자가 다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함
2016년~2022년	지출상한제와 재정규율 강화	• 연방지출 증가를 장기간 제한하는 지출상한제가 도입되었고, 경기둔화 속에서 재정통제와 거시 신뢰 회복이 정책의 중심이 됨
2023년~현재	새 재정체계와 조세개혁, Novo PAC·신산업정책·생태전환	• 지속가능 재정체계와 소비세 개편이 추진되고, 인프라 확충·재산업화·저탄소 전환을 묶은 정책 조합이 새 성장전략으로 제시됨

자료: KOTRA(2026), 국가지역정보-브라질을 기초로 작성함

- 1970년대에는 제1·2차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중화학공업과 에너지, 운송, 자본재 산업을 집중 육성 하였으나, 1980년대에 외채위기와 고인플레이션이 겹치며 기존 성장방식의 부담이 크게 드러남
 - 제1차 국가개발계획(I PND)은 고도성장기의 기반시설과 공공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2차 국가 개발계획(II PND)은 오일쇼크 이후에도 핵심 산업 투자를 지속해 산업사슬을 고도화하려는 정책이었음
 - 그러나 같은 시기 외채 의존이 커졌고, 1980년대에는 채무부담과 물가불안이 누적되면서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가 성장 촉진보다는 거시안정으로 이동하게 됨
- 1990년대에는 무역자유화와 민영화, 플라누 헤알(Plano Real), 물가목표제, 재정책임법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브라질 경제운영의 기준이 성장 촉진 중심에서 거시안정과 제도 신뢰 회복 중심으로 재편 되었음
 - 이 시기의 개혁은 브라질 경제를 보다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의 구조로 전환시켰으며, 플라누 헤알 이후의 물가안정, 고금리, 대형 내수시장 매력에 결합되면서 외국자본 유입과 민간투자가 점차 재개되었음
 - 플라누 헤알은 1994년 새 통화 헤알 도입과 임시 회계단위(URV)를 활용한 가격표시 안정, 재정·통화 관리 강화를 결합한 거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어진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끊어 낸 결정적 조치로 평가받음
 - 2000년 재정책임법은 공공재정 운영에 대한 규율을 제도화해 물가안정과 함께 브라질 거시정책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함

- 2000년대 이후 브라질은 원자재 호황과 내수 확대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키웠고, 성장가속화 프로그램 (PAC)을 통해 인프라 병목을 줄이려는 정책을 병행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기둔화와 재정압박이 심화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재정규율과 거시 신뢰 회복 쪽으로 이동하였음
 - 성장가속화 프로그램(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PAC)은 2007년 출범한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으로, 에너지·물류·주거·도시 인프라 병목을 해소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국가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졌음
 - 2000년대 중후반에는 대외 원자재 수요 확대와 사회정책 강화가 맞물리며 소비 기반이 넓어졌고, 정부는 성장과 사회포용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강조하였음
 - 반면 2016년 도입된 지출상한제는 연방지출 증가를 장기간 제한하는 신재정체제로서, 경기둔화 속에서 재정통제와 거시 신뢰 회복을 우선하는 정책기조를 상징하였음

-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은 신재정체계, 조세개혁, Novo PAC, 신산업정책, 생태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이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제도 단순화와 투자 재개, 산업경쟁력 회복,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속가능재정체계는 2023년 도입된 새 재정준칙으로, 거시안정과 성장 여건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같은 해 헌법개정으로 시작된 소비세 개편은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보다 단순한 구조로 재편하는 작업임
 - Novo PAC는 2023년 이후 인프라 투자를 다시 묶어내는 프로그램으로, 브라질 정부는 총 1.8조 헤알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산업화, 생태전환, 지역균형 발전과 연결하고 있음
 - 신산업정책인 Nova Indústria Brasil은 2026년까지 3,000억 헤알 투자를 통해 2033년까지의 재산업화 목표를 제시한 정책으로, 최근의 브라질 경제는 자원·농업 강국의 성격 위에 산업정책과 녹색전환 전략이 덧씌워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II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1.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 브라질 보험법제는 1960년대의 기본 감독체계 구축, 2007년 재보험 자유화, 2020년대의 건전성·데이터 규제 고도화, 2024~2025년 보험계약법 및 협동조합·상호부조 제도화로 이어지며 단계적으로 현대화되어 왔음
 - 1964년 보험중개인법 도입으로 보험중개인의 등록·자격·업무범위가 규정되며 모집·중개 제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고, 1966년 민영보험제도령에 따라 국가민영보험제도와 국가민영보험심의회, 보험감독원 체계가 정립되면서 오늘날 보험감독의 법적 기초가 형성되었음
 - 국가민영보험제도는 민영보험, 재보험, 개방형 사적연금, 자본화 시장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기본 보험 제도 체계를 뜻함
 - 1998년 민영건강보험법 도입과 2000년 국가보충의료청 설립법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건강보험은 일반 보험과 구분되는 별도 규제영역으로 정비되었고, 2007년 재보험 자유화법 시행을 계기로 60년 넘게 유지된 IRB 중심 독점체제가 해소되며 브라질 재보험시장의 국제화가 본격화되었음
 - IRB⁵⁾는 과거 국영 재보험 독점기관이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다른 재보험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참여자로 전환되었음
- 최근 법제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로, ① 보험계약법 전면 개편을 통해 관행·민법·감독규정에 흩어져 있던 계약규칙을 별도 법률로 모아 계약 해석과 보험금 처리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과, ② 보험협동조합 등을 보험감독원의 감독영역으로 편입하여 정식 시장참여자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 기존에도 민법과 구 민영보험제도령, 감독규정을 통해 보험계약을 규율해 왔으나 2025년 12월 시행된 보험계약법을 통해 보험계약 규율을 독립된 별도 법체계로 재편함
 - 보험자 일방 해지 제한, 면책위험의 명확한 고지, 보험금 처리기한 설정, 계약 해석상 피보험자 우선 원칙, 디지털 계약 인정 등을 통해 계약의 명확성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음
 - 동 법은 손해보험, 생명·신체보험, 의무보험, 소멸시효와 최종조항까지 포괄하는 6개 장 1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⁵⁾ Instituto de Resseguros do Brasil의 약자로, 이후 민영화를 거쳐 IRB Brasil RE로 운영되고 있음

- 2025년 협동조합·상호부조법 도입 이후 2026년 후속규정이 마련되면서 보험협동조합과 상호부조형 재산 보호단체가 보험감독원의 감독영역으로 편입되었고,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던 위험분담 조직도 정식 시장참여자로 관리되기 시작하였음
- 재보험 부문은 2007년 시장 개방 이후에도 국내 재보험시장 보호와 해외 재보험 활용 사이의 균형을 조정해 왔으며, 2022년 통합 규정과 2025년 보험계약법 시행 이후 관련 규정과 실무의 정합성을 재 정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재보험 통합 규정은 보험회사 자체보유 부담을 낮춰 재보험을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자본 부담을 줄였고, 동시에 일정 물량은 브라질 로컬 재보험회사에 먼저 제안하도록 해 국내 재보험시장의 보호장치를 유지하였음
 - 보험회사 최소 보유비율을 50%에서 10%로, 재보험회사 최소 보유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었음
 - 새 보험계약법은 재보험 인수 의사표시, 보험회사 파산 시 지급관계, 보험금 처리 지연 책임 등 실무 쟁점을 더 명확히 하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하위규정과 업계 관행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묵시적 인수는 재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보험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뜻함

〈표 3〉 브라질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 및 규제 변천

시기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내용
1964년	보험중개인법 (Law No. 4,594/1964)	• 보험중개인의 등록·자격·업무범위를 규정하여 모집·중개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함
1966년	민영보험제도령 (Decree-Law No. 73/1966)	• 국가민영보험제도(SNSP)의 법적 기반 마련 • 국가민영보험심의회(CNSP)·보험감독원(SUSEP) 체계와 보험·재보험 운영 틀을 정립함
1998년	민영건강보험법 (Law No. 9,656/1998)	• 민영건강보험 상품과 계약의 기본 규칙을 제정함 • 보충의료를 일반 보험과 구분되는 별도 규제영역으로 정비함
2000년	국가보충의료청 설립법 (Law No. 9,961/2000)	• 국가보충의료청(ANS)을 설립해 건강보험 감독기능을 분리함 • 보충의료 시장의 공익 보호와 사업자 규제 체계를 마련함
2007년	재보험 자유화법 (Complementary Law No. 126/2007)	• IRB 중심의 재보험 독점 체제를 해소함 • 재보험·역재보험·공동보험·해외계약의 기본 규율을 마련함
2020년	운영등록시스템 규정 (CNSP Resolution No. 383/2020)	• 보험·개방형연금·자본화·재보험 거래의 등록제를 도입함 • 감독당국의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 현대화를 추진함
2021년	시장 세분화 규정 (CNSP Resolutions Nos. 388·389/2021)	• 보험·재보험·자본화·연금시장을 S1~S4로 구분해 비례 규제를 도입함

〈표 3〉 계속

시기	보험산업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제	내용
2022년	건전성 통합 규정 (CNSP Resolution No. 432/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준비금·지급여력·최소자본금 기준을 통합 정비함 투자기준·회계기준을 포함한 현행 건전성 규제의 중심축을 형성함
	재보험 통합 규정 (CNSP Resolution No. 451/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보험·역재보험·공동보험·외화거래 규정을 정비함 재보험 출재와 수재, 중개 관련 현행 기본 틀을 제시함
2022년	옴부즈맨 규정 (CNSP Resolution No. 445/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 민원·옴부즈맨 기준을 정비함
2024년	ORSA 규정 (CNSP Resolution No. 471/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SA와 자본관리를 제도화해 리스크 기반 감독을 강화함 우선적으로 S1·S2 대형 감독대상회사에 적용함
	상품등록 규정 (Circular SUSEP No. 708/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등록·정지·취소 절차를 명확화함
2025년	보험계약법 (Law No. 15.040/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에 공포되었으며, 2025년에 시행됨 보험계약에 관한 독자적 법체계를 도입함 계약 명확성·소비자보호·법적 예측가능성을 강화함
	협동조합·상호부조법 (Complementary Law No. 213/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협동조합과 상호부조형 재산보호단체를 제도권에 편입함 SUSEP·CNSP의 인가·감독·제재 대상에 포함함
2026년	상호부조·보험협동조합 후속 규정 (CNSP Resolutions Nos. 491·492/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부조형 재산보호와 보험협동조합의 일반 규칙을 공표함 지역별 보호 공백 해소와 경쟁 촉진을 목표로 감독체계 안에 편입함

자료: AXCO(2026), "Life and Benefits Insurance Market Reports"; AXCO(2026),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2.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 브라질 보험감독체계는 보험, 건강보험, 연금을 하나의 기관이 일괄 감독하지 않고 기능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국가민영보험심의회(CNSP)는 민영보험, 개방형 사적연금, 자본화, 재보험의 정책 방향과 규범을 정하는 상위 기구이고, 보험감독원(SUSEP)은 그 정책을 집행하며 인허가·건전성·시장행위를 감독하는 집행기관임
 - 민영건강보험은 국가보충의료청(ANS)이 별도 감독하고, 폐쇄형 퇴직연금은 연금감독원(PREVIC)이 감독하므로, 브라질 보험시장은 다기관 규제체계 형태를 이루고 있음

가. 브라질 금융감독 관련 최근 변화

- 브라질 금융감독의 최근 변화는 2020년 즉시결제시스템인 픽스(Pix)를 도입하고, 2021년 이후 이를 개방형 금융(Open Finance)으로 확장해 은행상품뿐 아니라 외환, 투자, 보험, 개방형 연금까지 데이터 공유와 전자적 계약 기반을 넓혀 왔다는 점에 있음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0년 11월 픽스를 본격 운영하면서 24시간 실시간 소액결제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는 보험료 납입, 소액보험, 전자상거래 결제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디지털 기반이 되었음
 - 픽스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24시간 실시간 소액결제 시스템으로서 브라질의 디지털 결제 확산을 이끈 핵심 인프라임
 - 보험 부문에서는 2021년부터 개방형 보험(Open Insurance)이 도입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 하에 보험, 개방형 연금, 자본화 관련 정보가 참여기관 간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보험 상품 비교·가입·관리 서비스의 기반이 됨
 - 개방형 보험은 오픈뱅킹과 유사하게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제공할지 선택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데이터 이동성과 소비자 통제권을 함께 강화하는 제도임
- 2021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사회·환경·기후 리스크 관리와 공시를 강화하는 감독체계가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정성정보 중심의 공시에서 정량지표와 목표 공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진전되고 있음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1년 Resolution BCB No. 139를 통해 사회·환경·기후 리스크 및 기회 보고서(GRSAC) 공시체계를 도입하였고, 주요 금융기관이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음
 - GRSAC는 사회·환경·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정리한 보고서로, 초기에는 정성정보 중심이었으나 이후 기후 리스크 정량지표와 목표, 사회·환경 리스크 공시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가상자산, 지급결제, 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을 빠르게 구체화하며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2022년 가상자산법 제정과 2023년 중앙은행 감독권한 지정 이후, 2025년 말 중앙은행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영업·외환거래 관련 세부 규정을 공표하면서 2026년부터 관련 서비스가 정식 감독 체계에 편입됨
 - 2025년에는 정보기술서비스제공자(PSTI) 규정이 도입되어 금융기관과 감독대상 기관의 시스템 접속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사업자에게 등록, 자본, 거버넌스, 보안인증, 외부감사와 함께 보험 가입까지 의무화함
 - 정보기술서비스제공자 규정의 보험 요건은 민사책임보험과 운영위험보험을 포함하며 금융 사기 및 사이버보안 사고도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나. 보험회사의 면허제도와 사업 범위

- 브라질에서 보험회사, 자본화회사, 개방형 사적연금사업자, 로컬 재보험회사가 영업을 개시하려면 연방 정부를 대신해 보험감독원이 부여하는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전 영업은 허용되지 않음
 - 인가 대상 법인은 회사 목적을 보험시장 활동에 한정해야 하고 회사 정관과 사업계획, 지배구조, 자본 구조, 재무능력 등을 함께 심사받아야 함
 - 보험회사의 사업 범위는 인가받은 업권과 상품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며 보험회사는 사람, 재산, 책임, 의무, 권리, 보증과 관련된 위험 인수 활동에 전속되어야 함
 - 자본화회사는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가 아니라 만기 환급금과 추첨 요소가 결합된 자본화 증서⁶⁾를 판매하는 감독대상 회사를 뜻함
- 재보험은 로컬 재보험회사, 인가 재보험회사(Admitted reinsurer), 비정주 재보험회사(Occasional reinsurer)로 구분되며 해외 재보험회사는 브라질 내 인가법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인가 재보험회사는 브라질 내 대표사무소를 둔 해외 재보험회사이고 비정주 재보험회사는 브라질 내에 대표 사무소 없이 활동하는 해외 재보험회사이며, 두 형태 모두 보험감독원을 통한 등록과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함
 - 따라서 브라질의 면허제도는 원수보험에는 현지 인가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반면, 재보험에는 보다 개방된 등록형 진입 경로를 두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다. 보험회사 최소자본금과 지급여력제도

- 브라질의 지급여력제도는 최소요구자본금, 기술준비금, 조정순자산, 위험자본을 함께 관리하는 위험기반 자본규제 체계로 운영되며,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함
 - 보험회사 설립 단계에서는 납입자본이 최소요구자본금 이상이어야 하고, 인가 신청자는 사업계획상 첫 12개월 최대치를 기준으로 조정순자산을 최소요구자본금의 두 배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최소자본금 규제는 단순 정액 기준보다 실질적 재무능력 심사에 가깝게 운영됨
 - 최소요구자본금은 고정 자본과 위험자본을 결합한 개념으로서 회사 규모와 인수위험 구조에 따라 달라짐
 - 2021년 시장 세분화 규정은 보험, 재보험, 자본화, 연금시장을 S1부터 S4까지 네 개 구간으로 나누어

⁶⁾ 브라질에서 별도 감독업권인 자본화회사가 판매하는 특수 금융보장상품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

회사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자본·지급여력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비례규제 체계를 도입하였음

- S1은 대형·복합 감독대상회사이고 S4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단순 회사군을 뜻함
- 최근에는 자가위험·지급여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대형 감독대상회사부터 연 1회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전략과 자본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자가위험·지급여력평가 제도는 회사가 스스로 자신의 위험구조와 자본적정성을 평가해 감독당국과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를 뜻함

라. 소비자보호 규제

- 브라질의 보험 소비자보호는 보험회사 내부 민원처리,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감독, 일반 소비자보호 제도가 결합된 구조로 운영되며, 감독당국은 이를 보험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음
 - 보험계약자는 우선 보험회사 등의 옴부즈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옴부즈만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소비자는 그 뒤 20일 이내에 회사 답변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를 등록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회사 내부의 독립적 민원처리 창구로서 보험회사, 개방형 연금사업자, 자본화회사에 설치 가 요구됨
 - 감독당국은 소비자 민원이 정부의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독과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민원은 단순 상담창구가 아니라 감독정보의 원천으로 기능함
- 최근에는 상품등록 규정과 보험계약법 개정이 소비자보호의 실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 상품등록 규정은 보험상품의 등록, 거절, 정지, 취소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였고 운영등록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보험계약법은 면책위험의 명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 청구 처리 절차의 기준을 강화하여 계약 단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방향을 취함

마.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진입 규제

- 브라질에서는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인가 해외 원수보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수보험 영업을 위해서는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설립해 보험감독원(SUSEP)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보험회사, 개방형 사적연금사업자, 로컬 재보험회사가 브라질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두 연방정부 대신해 SUSEP가 부여하는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 지배주주와 주요 투자자 구조, 자금 출처, 재무능력, 경영진의 적격성, 평판 요건 등을 함께 심사받아야 함
 - 원수보험을 영위하려는 보험회사는 브라질 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고 회사 목적도 보험시장 활동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람·재산·책임·의무·권리·보증과 관련된 위험 인수만 수행할 수 있음
- 재보험회사의 경우 외국계 사업자가 브라질 원수보험시장에 진입하는 방식과 달리 브라질 내에 인가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인가 재보험회사(Admitted reinsurer) 또는 비정주 재보험회사(Occasional reinsurer) 형태로 등록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인가 재보험회사는 브라질 내에 대표사무소를 둔 해외 재보험회사이고 비정주 재보험회사는 브라질 내에 대표사무소 없이 활동하는 해외 재보험회사로서, 두 형태 모두 SUSEP를 통한 사전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공통 요건으로 해당 재보험 분야에서 5년 이상 영업 실적이 있을 것, 본국 감독당국 기준으로 지급여력 상태가 정상일 것, 최근 5년 내에 SUSEP 직권취소 이력이 없을 것 등이 요구됨
 - 인가 재보험회사의 경우 브라질 은행에 SUSEP 연계 외화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손해·생명 위험의 경우 최소 500만 달러, 인보험만 취급하는 경우 최소 100만 달러의 예치를 유지해야 함

바. 보험회사 투자 규제

- 브라질의 보험회사 투자 규제는 자산군별 획일적 투자 한도를 촘촘히 두기보다는 준비금 대응자산의 적격성, 자산 등록과 보관, 위험기반 자본 부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용행위를 통제하는 방식에 가깝게 운영됨
- 감독당국의 투자 안내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 개방형 사적연금사업자, 자본화회사, 로컬 재보험회사와 특별구성 투자기금의 투자기준은 건전성 통합 규정의 투자 장에서 함께 규율되며, 이는 투자 규제가 보험제도 전반의 지급여력 관리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줌
 - 특별구성 투자기금은 연금·생존보험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설정되는 전용 투자기금을 뜻함
 - 준비금 보증자산의 등록, 보관, 이동은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이 접근가능한 형태로 유지해야 함

사. 의무보험

- 교통사고 피해보호 의무보험은 오랫동안 운영된 기존 교통사고 피해보상제도(DPVAT)를 대체하기 위해 2024년 보완법을 통해 새로운 제도(SP VAT)를 도입하였으나, 2024년 말 폐지되어 실제로는 기존 DPVAT 체계의 잔여 운영이 이어지고 있음
 - SPVAT는 보장 내용 자체는 기존 DPVAT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보험료 징수 방식과 운영체계, 과도기 사고 처리, 시행세칙 준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전환에 실패함
 - 브라질에는 일반적인 자동차 대인 책임보험 의무는 없고, 대신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치료비를 보장하는 무과실 개인상해 성격의 DPVAT가 의무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카르타 베르지(Carta Verde)는 브라질 등록 차량이 MERCOSUR 회원국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외국에서 제3자에게 끼친 신체손해와 재산손해를 보장하는 국경 간 책임보험이라는 점이 특징임
 - 카르타 베르지는 승용차, 임대차량, 오토바이, 트레일러 등 다양한 차량에 적용되며 보장 대상은 제3자이고 운전자, 탑승자, 자기차량 손해는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MERCOSUR는 스페인어로 남미공동시장을 뜻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회원국에 속해 있고 최근에는 볼리비아가 새 회원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음

- 농업보험은 일반적인 민영 작물보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금융과 결합된 공적 성격의 의무보장 장치라는 성격이 강하며, 특히 가족농업강화프로그램(PRONAF) 신용 수혜자는 PROAGRO와 같은 공공 농작물·농업신용 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함
 - PROAGRO는 자연재해, 병충해, 질병 등으로 농업 생산이 타격을 받을 경우 농촌신용 상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임
 - 한국의 농업보험이 주로 정책보험과 보험료 보조를 통해 작물손실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브라질은 대규모 농업 국가라는 특성과 농촌신용 비중이 큰 구조 때문에 신용계약과 농업보장을 더 강하게 결합하는 방식이 두드러짐
 - 가족농업강화프로그램은 브라질의 소규모 가족농 지원을 위한 대표적 농촌신용 프로그램임

- 정보기술서비스제공자 보험은 브라질 의무보험 가운데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로, 국가금융시스템망(RSFN)에 연결되는 핵심 기술사업자의 사고가 금융안정과 결제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디지털 인프라 리스크 대응형 의무보험임
 - 2025년 브라질 중앙은행은 정보기술서비스제공자, 즉 금융기관과 감독대상 기관의 RSFN 접속을 위한 데이터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중앙은행 등록과 최소 자본, 거버넌스, 보안인증, 외부감사

와 함께 보험 가입을 인가요건으로 규정함

-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RSFN은 준비금이체시스템, 즉시결제시스템, 국채결제시스템 등 핵심 서비스를 떠받치고 있음
- 이 규정은 정보기술서비스제공자에게 민사책임보험과 운영위험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그 보장범위에 사기 및 사이버보안 사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동 보험은 디지털 금융인프라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과 운영손실을 함께 대비함

〈표 4〉 브라질 주요 의무보험

종류	관련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보험 (SPVAT·DPVAT)	•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장해·치료비를 보장하는 의무보험이며, 2024년에 새로운 보험 (SPVAT)가 도입되었으나 같은 해 말 폐지되어 기존 DPVAT 체계의 잔여 운영이 이어짐
카르타 베르지 (Carta Verde)	• 브라질 등록 차량이 MERCOSUR 회원국으로 이동할 때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임
도로 여객운송 차량 책임보험	• 버스 등 도로 여객운송 차량은 제3자 신체손해·재산손해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됨
도로 화물운송 차량 책임보험	• 화물운송 차량은 제3자 신체손해·재산손해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되며, 2024년 기준 최소 보장한도가 보완됨
화물운송인 배상책임보험	• 도로·철도·수운·항공 복합운송 등 화물운송인의 화물손해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음
콘도미니엄 재산손해보험	• 공동주택·콘도미니엄은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전용 종합보험 가입이 요구됨
PRONAF 수혜자 작물보험	• 가족농업강화프로그램(PRONAF) 대출 수혜자는 공공 농업신용보험 프로그램 가입이 요구됨
선박 인적손해 의무보험(DPEM)	• 선박이나 그 화물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의무보험으로, 2024년부터 적용과 운영기준이 다시 명확화됨
항공기 소유자 책임보험	• 항공기 소유자·운항자는 민사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정부 소유가 아닌 250g 초과 드론도 의무 대상에 포함됨
정보기술서비스제공자 (PSTI) 보험	• RSFN 접속 지원 사업자는 민사책임보험과 운영위험보험 가입이 요구되며, 사기 및 사이버보안 사고도 보장범위에 포함됨

자료: AXCO(2026), "Non-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아. 사회보장법

- 브라질의 사회보장 제도는 1988년 연방헌법이 도입한 사회보장(Seguridade Social) 개념을 기초로 하며, 이는 보건, 사회부조, 사회보험의 세 축으로 구성되고, 국가사회보험원(INSS)이 공적 사회보험 급여의 징수·관리·지급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됨

- 공적 사회보험의 일반제도는 일반사회보험제도(RGPS)로 운영되며, 주요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질병급여, 출산급여, 유족연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등이 포함됨
- 외국인도 브라질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취업자격을 갖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적 사회보장 적용을 받으며, 브라질은 MERCOSUR 국가들과의 사회보장 통산협정도 운영하고 있어 역내 근로자의 가입 기간 통산과 급여청구가 가능함

○ 사회보험의 재원조달과 급여체계는 1991년 사회보장 비용법과 사회보험 급여법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왔고, 2019년 연금개혁 헌법개정을 통해 수급연령과 기여요건, 급여산정 방식이 다시 조정되었음

- 2019년 개혁 이후 노령연금은 1994년 7월 이후의 조정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의 60%에 추가 기여연수에 따른 가산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최저연금은 최저임금 수준, 최고연금은 사회보험 기여상한 수준으로 제한됨
- 이와 함께 직업형·개인형 보완연금은 2001년 보완연금법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폐쇄형 보완연금 기금(EFPC)은 연금감독원(PREVIC), 개방형 보완연금기금(EAPC)은 보험감독원(SUSEP)의 감독을 받는 이원 구조로 운영됨
- 폐쇄형 보완연금기금(EFPC)은 주로 기업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비영리 직역형 연금이고, 개방형 보완연금기금(EAPC)은 보험회사나 은행계 금융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연금상품으로서 브라질의 노후보장 체계는 공적 사회보험과 민간 보완연금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보임

〈표 5〉 브라질 주요 사회보장법

시행 연도	법·제도	주요 내용
1988년	연방헌법 (Constituição Federal de 1988)	• 사회보장을 보건·사회부조·사회보험의 통합 체계로 규정함
1991년	사회보장 비용법 (Law No. 8.212/1991)	• 사회보장 재원조달, 기여구조, 조직체계를 규정함
	사회보험 급여법 (Law No. 8.213/1991)	• 일반사회보험제도(RGPS)의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을 규정함
1993년	사회부조조직법 (LOAS, Law No. 8.742/1993)	• 비기여형 사회부조의 조직과 급여, 최소보장 체계 규정함
2001년	보완연금법 (Complementary Law No. 109/2001)	• 개방형·폐쇄형 보완연금의 공동 법적 틀 정비함
2009년	연금감독원(PREVIC) 설립법 (Law No. 12.154/2009)	• 폐쇄형 보완연금기금(EFPC) 감독기관을 신설함
2019년	연금개혁 헌법개정 (EC 103/2019)	• 수급연령·기여요건·급여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함

자료: AXCO(2026), "Life Insurance Market Reports"를 기초로 작성함



보험시장 현황

1. 전체 보험시장 현황

- 2024년 브라질 보험시장은 전 세계 보험시장의 1.1%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2위를 기록함
 -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규모는 889억 달러로, 미주 지역 내에서는 미국(1위), 캐나다(7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임
 -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업이 전 세계 수입보험료의 1.5%를 차지하며 13위, 손해보험업은 전 세계 원수 보험료의 0.9% 규모로 13위에 위치함
 - 동 기간 우리나라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규모는 1,757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2.3% 규모이며,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업은 세계 9위(2.3%), 손해보험업은 세계 7위(2.1%)를 차지함
- 2024년 기준 브라질의 보험침투도는 4.1%, 보험밀도는 420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943달러)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업권별 보험침투도는 생명보험업이 약 2.2%, 손해보험업이 약 1.9%이며, 보험밀도는 생명보험업 226달러, 손해보험업이 193달러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보험침투도는 9.4%, 보험밀도는 3,614달러로 브라질 및 글로벌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표 6〉 미주 지역 주요국 보험산업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 비교(2024년)

(단위: %, 백만 USD, %, 달러)

구분	세계순위	점유율	시장규모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미국	1위	44.8	3,496,714	12.1	10,295
캐나다	7위	2.3	180,587	8.1	4,389
브라질	12위	1.1	88,942	4.1	420
멕시코	19위	0.7	50,701	2.7	387
아르헨티나	39위	0.2	14,122	2.3	309
콜롬비아	40위	0.2	13,457	3.2	254
칠레	41위	0.2	12,445	3.8	621

주: 시장규모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자료: Swiss Re(2025), "World insurance", sigma 2/2025

- 2024년 브라질 보험시장은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이 각각 53.9%, 4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양 업권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322억 달러에서 2024년 480억 달러로 49.0% 증가하였으나 전체 보험료에서 생명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5.6%에서 53.9%로 1.7%p 축소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보험료 규모는 매년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0년 257억 달러에서 2024년 410억 달러로 59.4% 증가하였으며, 시장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4.4%에서 46.1%로 1.7%p 확대됨

〈표 7〉 브라질 보험산업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USD,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생명보험	32,198 (55.6)	34,227 (55.1)	39,710 (53.2)	45,580 (53.2)	47,969 (53.9)
손해보험	25,702 (44.4)	27,855 (44.9)	34,976 (46.8)	40,142 (46.8)	40,973 (46.1)
전체	57,900	62,082	74,686	85,722	88,942
보험료 성장률	-21.1	7.2	20.3	14.8	3.8

주: 1) ()는 비중을 의미함

2) 적립형 상품(주로 퇴직연금상품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세제적격 연금지축보험) 관련 자산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Swiss Re, "World insurance", 각호

- 브라질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최근 5년간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엄격한 투자 규제 및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내 채권 및 수익증권 중심의 안전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총자산 규모는 2020년 1조 2,816억 헤알에서 2024년 1조 9,409억 헤알로 51.4%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투자자산은 1조 5,567억 헤알로 총자산의 80.2%를 차지하고 있음
 - 운용자산의 대부분은 수익증권,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포트폴리오 내 96%를 차지하는 수익증권은 대부분 채권형 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됨
 - 이는 브라질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기조에 기인한 것으로, 현행 자산건전성 규제상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자산을 주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적립(매칭)해야 하는 의무 요건이 존재하여 채권형 자산에 대한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자산군 다변화 및 해외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자산 내 외화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8〉 브라질 보험산업 총자산 추이

(단위: 백만 BRL,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보험산업	금액	1,281,638	1,347,293	1,524,732	1,739,572	1,940,855
	성장률	7.64	5.12	13.17	14.09	11.57

주: 적립형 상품 관련 자산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표 9〉 브라질 보험산업 투자자산 구성

(단위: 백만 BRL,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익증권	금액	990,016	1,019,980	1,154,536	1,341,003	1,503,678
	비중	88.31	96.42	89.75	95.67	96.59
채권형자산	금액	103,341	12,837	103,928	24,991	21,498
	비중	9.22	1.21	8.08	1.78	1.38
국내 금융자산	금액	23,612	21,139	23,341	31,111	27,725
	비중	2.11	2.00	1.81	2.22	1.78
지분증권	금액	2,867	2,651	3,404	3,541	2,913
	비중	0.26	0.25	0.26	0.25	0.19
국내 실물자산	금액	251	227	276	369	237
	비중	0.02	0.02	0.02	0.03	0.02
부동산	금액	347	323	317	309	304
	비중	0.03	0.03	0.02	0.02	0.02
외화유가증권	금액	124	149	163	2	3
	비중	0.01	0.01	0.01	0.00	0.00
기타	금액	518	492	442	396	376
	비중	0.05	0.05	0.03	0.03	0.02
합계		1,121,077	1,057,797	1,286,407	1,401,723	1,556,734

주: 적립형 상품 관련 자산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 브라질 보험산업의 투자자산 규모는 2021년 소폭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투자자산 규모는 1조 5,567억 헤알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나 순투자이익은 전년 대비 12.0% 감소하여 자산 규모 성장에 비례하는 수익성 개선은 나타나지 않음
- 운용자산이익률은 2023년 1.95%에서 2024년 1.55%로 0.4%p 하락함

〈표 10〉 브라질 보험산업 투자수익 추이

(단위: 백만 BRL,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자산	1,121,077	1,057,797	1,286,407	1,401,723	1,556,734
순투자수익	14,207	10,935	18,174	27,294	24,202
운용자산이익률	1.27	1.03	1.41	1.95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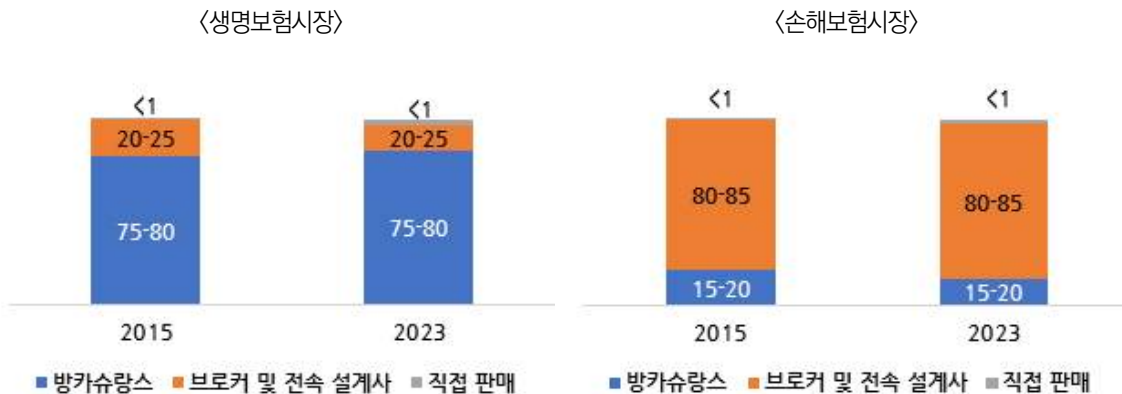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 브라질 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 간 주력 판매 채널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장기간 채널별 점유율 구조의 변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시장은 대형 은행 중심의 방카슈랑스 채널이 2023년 기준 전체의 75~80%를 차지하며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는 반면, 브로커 및 전속 설계사 채널 비중은 20~2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는 연금 및 저축성 상품이 주로 은행 창구를 통해 유통되는 브라질 생명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함
- 반면, 손해보험시장은 계약 체결 시 개별 물건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브로커 및 전속 설계사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양 업권 모두 직접 판매채널의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 이에 보험감독원(SUSEP)은 특정 판매채널에 대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금융 및 오픈 인슈어런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다이렉트 채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1〉 브라질 보험시장 판매채널 현황

(단위: %)



주: 직접 판매채널은 디지털채널, 콜센터, 지점 포함임

자료: McKinsey&Company(2025. 5. 7.), "Pursuing insurance growth in Latin America"

2. 생명보험시장 현황

- 브라질 생명보험시장은 보장 중심의 순수 보험상품과 노후 대비 및 자산 운용 성격의 연금상품으로 구분되며, 2025년 기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연금 제외)는 776억 헤알로 전년 대비 8.8% 증가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385억 헤알로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48%를 차지하였으며,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감
 - 보장성보험은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을 포함하며,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개인연금 등 저축성 상품에 특약 형태로 연계되어 판매되고 있음
 - 최근 고령 가구 및 도시 지역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망 및 중대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실행 시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2025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217억 헤알을 기록함
 - 브라질 특유의 할부 및 소액대출 중심 소비 문화에 기반하여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29% 비중을 차지함
 - 개인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신체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2025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96억 헤알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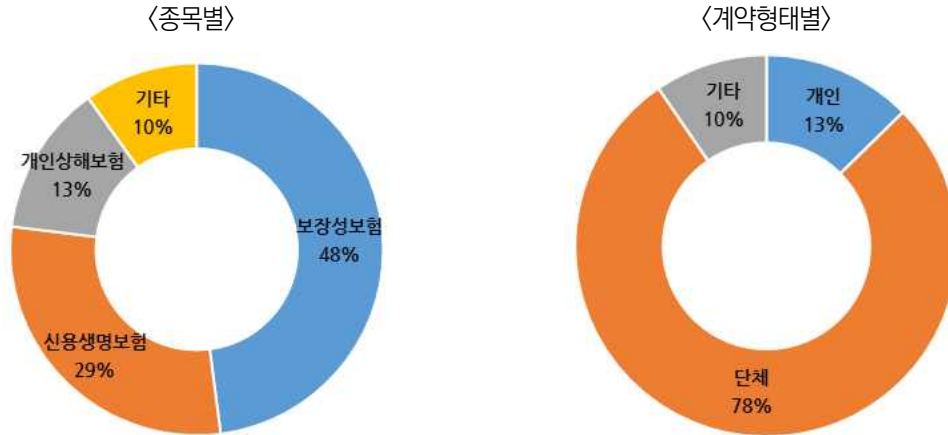
〈표 11〉 브라질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BRL,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장성보험 (Vida)	금액	234.6	270.1	303.7	341.9	385.3
	증가율	17.4	15.1	12.4	12.6	12.7
신용생명보험 (Prestamista)	금액	156.2	167.3	170.5	206.9	216.5
	증가율	6.1	7.1	1.9	21.3	4.6
개인상해보험 (Acidentes Pessoais)	금액	68.6	73.7	79.6	93.9	95.8
	증가율	14.1	7.5	8.0	18.0	2.0
기타	금액	48.8	59.8	63.7	70.4	78.3
	증가율	8.8	22.7	6.4	10.7	11.2
합계	금액	508.2	570.9	617.5	713.2	775.9
	증가율	12.4	12.3	8.1	15.5	8.8

자료: SUSEP, 월간 보험통계, 각 연도

〈그림 2〉 브라질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중(2024년)



자료: SUSEP(2025), 2024년 12월 보험통계;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브라질 생명보험시장은 개인보험보다 단체보험 중심의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수입보험료 기준 단체보험 비중은 78%인 반면, 개인보험 비중은 13%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특히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9%를 차지하는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의 여신 리스크 관리 및 차주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며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단체 계약 형태로 대규모 판매가 이루어짐
- 한편, 상대적으로 보험 침투율이 낮은 개인 보장성 보험 시장에서는 고령층 대상 상품과 소액 단기 보험 등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늘며 잠재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 12〉 브라질 생명보험 계약형태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BRL,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인보험 (Individual)	금액	25.2	39.7	45.6	51.4	60.6
	증가율	-21.4	57.6	14.7	12.8	17.9
단체보험 (Group)	금액	193.2	294.2	319.6	334.4	372.8
	증가율	-23.0	52.2	8.6	4.7	11.5
기타 (Other)	금액	10.9	21.0	31.5	39.2	45.7
	증가율	-6.9	93.2	50.2	24.7	16.4
합계	금액	229.3	354.9	396.6	425.1	479.1
	증가율	-22.2	54.8	11.8	7.2	12.7

주: 보험감독원(SUSEP)의 포괄적 인보험 분류와 AXCO의 국제기준 간 차이로 인해, 〈표 12〉의 생명보험 실적에는 개인 상해 및 건강보험(Personal Accident & Health) 데이터가 제외됨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5년 말 기준 브라질 생명보험시장의 연금상품 적립금은 1,578억 헤알로 전년 대비 19.7% 감소하였으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방형 보완연금기금(EAPC)의 연금상품으로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VGBL),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PGBL), 전통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25년 말 기준 세금 이연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1,393억 헤알로 전년 대비 21.8% 감소한 반면,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155억 헤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2025년 6월부터 월 5만 헤알 초과 금액에 대해 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원천징수 한도 역시 기존 30만 헤알에서 60만 헤알로 상향 조정됨
- 반면,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월납입액이 낮고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추가 납입이 가능해 상품 설계의 유연성이 높으며, 연간 과세 소득의 최대 12% 한도 내 납입금 소득공제 및 투자 수익 비과세 혜택이 제공됨

〈표 13〉 브라질 연금상품 종목별 적립금

(단위: 억 BRL,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VGBL)	금액	1,261.6	1,403.8	1,532.7	1,782.5	1,393.1
	증가율	11.9	11.3	9.2	16.3	-21.8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PGBL)	금액	116.2	126.8	139.3	153.1	155.4
	증가율	7.2	9.1	9.9	9.9	1.5
전통적 연금 (Previdência Tradicional)	금액	33.5	33.5	32.3	31	29.9
	증가율	1.2	0.0	-3.6	-4.0	-3.5
합계	금액	1,411.3	1,564.1	1,704.3	1,966.6	1,578.4
	증가율	11.2	10.8	9.0	15.4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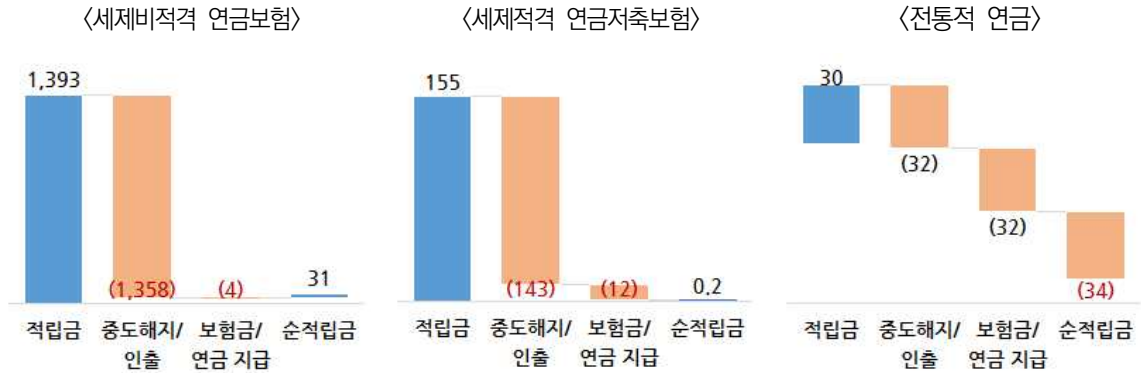
자료: SUSEP, 월간 보험통계, 각 연도

○ 2025년 브라질 연금상품의 적립금 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적립금 유입 규모가 중도 해지 및 인출 규모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브라질은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 초기 인출 시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나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10%까지 낮아지며 만기 시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일시금 수령 및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함
-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해당 상품을 장기적인 연금 수령 목적보다는 필요시 자금 인출이 가능한 유연한 장기 저축성 펀드 형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3〉 브라질 연금 상품 적립금 변동(2025년)

(단위: 억 BRL)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 2024년 말 기준 브라질 내 생명보험회사는 총 98개로, 이 중 다수가 대형 금융기관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8.0%, 상위 10개사는 64.9%를 기록하며 높은 시장 집중도를 나타냄

- 브라질은 방카슈랑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방코 두 브라질(Banco do Brasil), 브라데스코(Bradesco), 카이샤(Caixa), 이타우(Itau) 등 주요 대형 은행들이 생명보험업계 내 자회사 및 합작법인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음
- 2024년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평균 12.0% 감소함

〈표 14〉 브라질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BRL, %)

순위	회사명	2023년		2024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1	Brasileg Companhia de Seguros S.A.	9,775	16.2	8,864	16.7	10.3
2	Zurich Santander Brasil Seguros e Previdencia S.A.	6,060	10.0	5,767	10.9	5.1
3	Itau Seguros S.A.	5,360	8.9	4,630	8.7	15.8
4	Icatu Seguros S.A.	4,052	6.7	3,476	6.5	16.6
5	Bradesco Vida e Previdencia S.A.	3,480	5.8	2,789	5.2	24.8
6	Cardif do Brasil Vida e Previdencia S.A.	2,574	4.3	1,953	3.7	31.8
7	XS2 Vida e Previdencia S.A.	2,197	3.6	3,197	6.0	-31.3
8	Caixa Vida e Previdencia S.A.	2,126	3.5	1,058	2.0	100.9

〈표 14〉 계속

순위	회사명	2023년		2024년		성장률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9	Metropolitan Life Seguros e Previdencia Privada S.A.	1,832	3.0	1,527	2.9	20.0
10	Generali Brasil Seguros S.A.	1,715	2.8	1,221	2.3	40.4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64.8		64.9		-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47.6		48.0		-

자료: AXCO(2025), "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5년 생명보험 세전 당기순이익은 566억 헤알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0% 증가함

- 보험손익은 324억 헤알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연속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15〉 브라질 생명보험 손익 추이

(단위: 백만 BRL,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험손익	금액	11,838	6,888	15,578	25,635	32,418
	증가율	-	-41.8	126.2	64.6	26.5
세전 당기순이익	금액	26,045	17,824	31,772	52,929	56,620
	증가율	-	-31.6	78.3	66.6	7.0

자료: AXCO(2025), "AXCO Global Statistics"

3. 손해보험시장 현황

○ 브라질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352억 헤알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 자동차보험은 브라질 손해보험시장을 견인하는 주력 종목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619억 헤알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시장의 46%를 차지함
- 재물보험은 자동차보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30%)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 수요 확대에 힘입어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405억 헤알을 기록함
- 보증 및 신용보험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확대와 기업의 신용 리스크 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8.8% 증가한 106억 헤알을 기록하며, 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해상·항공·운송보험과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각각 104억 헤알(8.0% 증가), 57억 헤알(11.8% 증가)을 기록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감
-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44억 헤알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연장보증보험 및 에너지 특수위험보험 등이 포함된 기타 종목은 17억 헤알로 전년 대비 9.8%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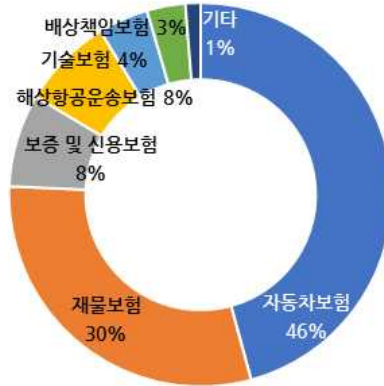
〈표 16〉 브라질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BRL,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동차보험 (Motor)	금액	386.6	513.2	561.1	579.5	618.6
	증가율	-	32.7	9.3	3.3	6.7
재물보험 (Property)	금액	250.4	312.1	345.2	380.2	404.9
	증가율	-	24.7	10.6	10.1	6.5
보증 및 신용보험 (Surety, Bonds & Credit)	금액	56.2	65.2	77.8	89.1	105.9
	증가율	-	16.1	19.3	14.6	18.8
해상·항공·운송보험 (Marine, Aviation & Transit)	금액	72.7	85.5	90.3	96.4	104.1
	증가율	-	17.6	5.5	6.8	8.0
기술보험 (Construction & Engineering)	금액	38.7	42.6	46.1	51.3	57.4
	증가율	-	9.9	8.2	11.4	11.8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금액	32.5	36.3	38.3	42.6	43.8
	증가율	-	11.7	5.5	11.3	2.9
기타 (Miscellaneous)	금액	7.3	12.4	12.9	19.2	17.3
	증가율	-	69.5	3.9	49.1	-9.8
합계	금액	844.4	1,067.3	1,171.6	1,258.3	1,352.1
	증가율	-	26.4	9.8	7.4	7.5

주: 재물보험에는 종합보험과 재산종합/특수위험보험이 포함되고 기타에는 연장보증보험, 에너지 특수위험보험 등이 포함됨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그림 4〉 브라질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손해보험 손해율은 2022년을 고점으로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차량 수리비 상승 및 부품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60%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재물보험 손해율은 안정적인 언더라이팅 실적과 재보험 비용 부담 완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전년 대비 12.4%p 하락함
- 반면, 보증 및 신용보험 손해율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대규모 기업 파산 및 법정관리 증가로 보험금 청구액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12.6%p 상승함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2024년 보험계약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의료·배상 비용 상승 우려로 인해 2025년 손해율은 전년 대비 11.1%p 상승함

〈표 17〉 브라질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동차보험	62.0	69.4	58.0	59.4	60.2
재물보험	62.3	59.7	37.1	43.9	31.5
보증 및 신용보험	18.8	41.5	47.0	28.6	41.2
해상·항공·운송보험	36.5	44.7	40.1	52.3	57.9
기술보험	22.3	26.7	26.5	18.7	17.5
배상책임보험	36.1	43.7	57.7	26.3	37.4
기타	27.6	24.1	11.5	7.5	8.4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5년 말 기준 브라질 손해보험회사는 총 102개로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9.2%, 상위 10개사는 68.4%를 기록하며 시장 집중도가 다소 높은 편임
 -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외국계 보험회사로, 외국계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편임. 예로 시장점유율 2위인 도쿄 마린(Tokio Marine Seguradora)은 카이샤(CAIXA Seguradora)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시장 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음
 - 2025년 상위 10개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평균 9.7% 증가했으며, 특히 상위 5개사는 평균 15.9%의 성장세를 보임

〈표 18〉 브라질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BRL, %)

순위	회사명	2024년		2025년		성장률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1	Porto Seguro Companhia de Seguros Gerais S.A.	15,359	12.6	20,378	16.0	32.7
2	Tokio Marine Seguradora S.A.	12,334	10.1	13,620	10.7	10.4
3	Allianz Seguros S.A.	9,133	7.5	10,933	8.6	19.7
4	Bradesco Auto/RE Companhia de Seguros S.A.	9,094	7.5	9,467	7.4	4.1
5	MAPFRE Seguros Gerais S.A.	8,184	6.7	8,322	6.5	1.7
6	Liberty Seguros S.A.	6,516	5.3	6,953	5.5	6.7
7	Zurich Minas Brasil Seguros S.A.	5,253	4.3	5,801	4.6	10.4
8	HDI Seguros S.A.	5,403	4.4	5,516	4.3	2.1
9	Chubb Seguros Brasil S.A.	2,898	2.4	3,300	2.6	13.9
10	Brasilseg Companhia de Seguros S.A.	5,262	4.3	2,836	2.2	-46.1
상위 10개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		65.2		68.4		-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		44.4		49.2		-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손해보험 세전 당기순이익은 529억 헤알로 전년 대비 66.6% 증가함
 - 보험손익은 보험료 인상 및 손해율 안정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8.5% 증가한 256억 헤알을 기록함
 - 브라질은 2021년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 및 투자 운용수익 확대가 손해보험회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표 19〉 브라질 손해보험 손익

(단위: 백만 BRL,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험손익	금액	12,813	11,838	6,888	13,598	25,635
	증가율	-	-7.6	-41.8	97.4	88.5
세전 당기순이익	금액	32,307	26,045	17,824	31,772	52,929
	증가율	-	-19.4	-31.6	78.3	66.6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2023년 브라질 손해보험회사의 로컬 재보험회사 출재보험료는 223억 헤알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함

- 브라질은 지진 및 풍해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 노출이 비교적 낮은 지리적 특성이 있어 최근 5년간 손해 보험회사의 로컬 재보험회사 출재율은 18%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통적으로 원수보험회사의 자체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이나 2024년 대규모 홍수 사태 이후 홍수 피해 전액 보장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대재해 담보 목적의 재보험 출재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0〉 브라질 로컬 재보험회사 출재보험료

(단위: 백만 BRL,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9,331	11,832	15,569	19,535	22,340
증가율	12.9	16.0	18.4	18.3	19.1
출재율	18.4	18.3	19.1	18.2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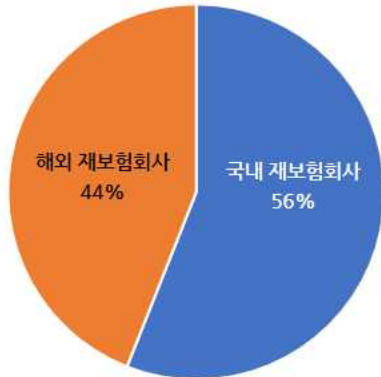
주: 출재율은 원수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 비중임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2007년 재보험 독점 체제 종료 및 규제 개편을 통한 시장 개방 이후, 원수보험회사들의 출재 패턴이 다변화됨에 따라 로컬 재보험회사로의 출재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임

- 2007년 IRB의 독점 체제가 종료되고 다수의 신규 회사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현재는 14개의 로컬 재보험회사가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됨
- 원수보험회사들은 기존 획일적인 비례재보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비례 및 비비례 재보험을 결합하고 해외 재보험회사의 풍부한 인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출재보험료 내 로컬 재보험회사 비중은 2015~2018년 약 70% 수준에서 2024년 56%로 축소되었으며, 시장 선도 기업인 IRB의 점유율 역시 2021년 47.8%에서 2025년 30.3%로 하락함
- 해외 재보험회사에 대한 역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시장 내 경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로컬 재보험회사들은 대규모 리스크 인수를 축소하는 대신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언더라이팅 전략으로 조정하고 있음

〈그림 5〉 재보험회사 유형별 출재보험료 비중
(2024년)



〈표 21〉 브라질 상위 5개 로컬 재보험회사
수재보험료 및 시장점유율(2025년)
(단위: 백만 BRL, %)

순위	회사명	수재보험료	시장점유율	성장률
1	IRB Brasil Re	4,272	30.3	-0.7
2	Austral Re	1,938	13.8	-5.3
3	AGCS Brasil	1,578	11.2	23.4
4	Munich Re Brasil	1,355	9.6	50.3
5	MAPFRE Re Brasil	1,337	9.5	10.5

자료: AM Best(2025. 10. 23.), "Brazil Reinsurance Market Outlook" 자료: AXCO(2025), "Non-Life and Benefit Insurance Market Reports"

- 자본화증서는 정기적인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과 보유 기간 중 제공되는 현금 보장(추첨) 기회를 결합한 브라질 특유의 하이브리드형 금융상품임
 - 고객이 일정 기간 자금을 예치하여 원금을 적립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수익 배분 추첨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이며, 크게 일반 저축형(Tradiciona), 기부연계형(Filantropia Premiável), 보증서비스형(Instrumento de Garantia)으로 구분됨
 - 계약 만기 시 기납입액을 환급받는 저축 기능에 계약 기간 중 주 또는 월 단위 정기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받는 복권 기능이 결합되어 있음
 - 해당 상품은 보험감독원(SUSEP)의 인가를 받은 자본화회사만이 설계 및 발행할 수 있으며,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유통됨
 - 원금 보장형 상품이나 일반 예·적금 대비 적용 이자율이 낮은 편이고 중도해지 시 패널티 부과되어 만기 전 해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제약된다는 특징을 지님
- 브라질 자본화증서시장은 총납입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 저축형 상품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 총납입액은 2021년 242억 헤알에서 2025년 340억 헤알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시장 내 일반 저축형 상품의 비중이 71%를 차지함
 - 특히 2022년에는 기업 및 개인의 사회적 책임(CSR) 연계 수요 확대에 힘입어 기부연계형 상품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당해 연도에만 약 14억 8,000만 헤알의 자금이 자선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⁷⁾

〈부록 표 1〉 브라질 자본화증서 총납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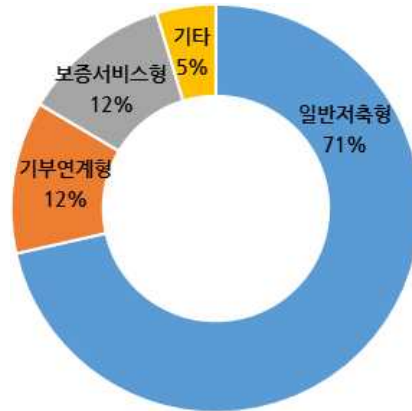
(단위: 억 BRL,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납입액	241.8	284.0	299.7	320.4	339.5
증가율	4.3	17.4	5.6	6.1	4.2

자료: SUSEP, 월간 보험통계, 각 연도

⁷⁾ FenaCap(2023. 1. 3.), “Mercado de Capitalização cresceu 16,9% em 2022, com receita de R\$ 28,39 bilhões”

〈부록 그림 1〉 브라질 자본화증서 종목별 총납입액 비중



- 주: 1) 일반저축형: 계약 기간 만료 시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는 저축 기능과 계약 기간 중 정기적인 추첨을 통해 추가 보상(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복권 기능이 결합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품임
- 2) 기부연계형: 당첨금이나 해약금의 일부가 자선 단체에 기부되는 구조의 상품임
- 3) 보증서비스형: 임대차 계약 보증금 등을 대신하기 위해 활용되는 보증 성격의 저축 상품으로 한국의 보증보험과 유사한 목적으로 쓰임

자료: SUSEP, 월간 보험통계, 각 연도

IV

시사점

- 브라질의 보험시장은 전국 평균 지표만으로는 실질 구조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형 시장으로서, 북부 아마존권의 저밀도·장거리 물류, 남동부 대도시권의 금융·서비스 집중, 남부와 중서부의 농업·재해위험이 서로 다른 보험수요와 손해율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 한국 보험시장과 구별되는 특징임
 - 남동부 대도시권은 금융·서비스업과 제조업, 기업 본사와 중산층 소비가 집중되어 자동차보험·기업보험·민영건강보험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는 반면, 북부와 내륙 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장거리 물류, 은행 의존도가 높은 판매구조로 인해 동일한 상품이라도 판매방식과 손해조사 환경이 다르게 나타남
 - 예를 들어 북부 아마존권은 수로 교통과 광범위한 이동거리, 낮은 도시 밀도로 인해 대면 판매와 사고 접수, 손해사정의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남부와 중서부는 곡물·축산 중심의 농업지대가 넓게 분포해 농업보험과 화물·기계 관련 위험이 중요한 반면, 남동부는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로 핵심 보험종목과 손해율 변동 요인이 뚜렷하게 구분됨
 - 남부와 중서부는 농업보험의 핵심 권역으로, 2024년 농촌보험보조금(PSR) 기준 두 지역의 비중이 75.2%, 보험 가입 면적 비중이 65.7%임
 - 남동부는 2024년 말 기준 전국 등록차량의 47.4%, 승용차의 53.7%가 집중되어 자동차보험 수요 기반이 가장 큼
 - 기후와 재해위험도 지역마다 달라 특정 지역의 홍수나 산불, 농업피해가 자동차보험·재산보험·농업보험에 동시에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있어, 브라질 보험시장은 전국 평균 성장률이나 침투도보다 지역별 위험집중도와 재보험 의존도를 함께 보아야 실제 구조가 잘 드러남
 - 2024년 남부 리우그란지두술 대홍수처럼 지역 재해가 자동차보험에도 큰 손실을 발생시킨 사례(10억 헤알 초과)는 브라질 시장의 지역 연동형 위험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브라질 보험시장은 제도 측면에서 최근 법·규제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성격은 재설계라기보다 통합 과정에 가까우므로, 향후 시장평가에서는 법률의 문언뿐 아니라 후속 하위규정과 감독당국의 해석이 실제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볼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법은 계약 명확성과 소비자보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으나,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재보험 인수 의사표시, 보험금 처리기한, 파산 시 지급관계, 디지털 계약의 실무 적용 등에서 세부 해석이 축적되는 단계에 있음

- 협동조합·상호부조 제도화 역시 제도권 밖의 위험분담 조직을 감독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브라질 보험시장은 전 세계 보험시장의 1.1%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업이 53.9%, 손해보험업이 46.1% 차지함
- 세계 평균 대비 낮은 보험침투도와 밀도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양 업권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생명보험시장은 주로 단체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 가구 및 근로자들의 위험 인식 제고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성장과 할부·소액대출 중심의 소비문화에 기반한 신용생명보험의 확대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보장성보험과 신용생명보험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연금상품의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과세 규제 강화와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중도 인출 성향 등으로 인해 신규 적립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판매채널은 연금 및 저축성 상품이 주로 은행 창구를 통해 유통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대형 은행을 통한 방카슈랑스 채널이 전체의 75~8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
- 손해보험시장은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물보험 수요 확대, 인프라 개발 및 기업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 및 신용보험의 고성장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함
-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46%를 점유하는 자동차보험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규모 홍수 사태 등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거대재해 담보 목적의 재보험 출재를 확대하는 추세임
 - 판매채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별 물건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맞춤형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생명보험과 달리 브로커 및 전속 설계사 채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저자약력

강윤지 연구원 / 경제학 석사

김유미 연구원 / 보험계리학 석사

2026 해외보험리포트

브라질

발행일 2026년 6월

발행인 김헌수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